

# 처방으로서의 도시 녹지

## - 대한제국기 종목일 제정 운동의 배경과 의미 -

김정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강사

### I. 서론

최근 녹지는 도시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처방'으로 주목받고 있다. 웰빙 향상, 스트레스 완화 등 녹지의 건강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도시민에게 더 많은 녹지를 공급하거나, 사람들을 녹지로 인도하는 계획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Van den Berg, 2017). 예컨대 2018년부터 영국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산책, 새 관찰, 정원 가꾸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 '자연 처방(nature prescriptions)'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녹지와 건강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세기 전,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위생 문제가 대두되었던 북미와 유럽은 그 해결책으로 공원이라는 새로운 녹지 유형을 발명하고(황주영, 2014), 가로수 식재 체계를 정립했다(Dümpelmann, 2019). 조경이라는 전문 분야의 탄생을 이끈 원동력은 근대 도시의 위생 개념이었다.

한국 공원녹지의 탄생 역시 근대계몽기에 형성된 위생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양생'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인 '위생'으로 논의되던 때(고미숙, 2014), 도시위생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원이 부각되었다(강신용과 장윤환, 2004). 이외에도 1896년 8월 11일자 「독립신문」에 종목일 제정을 건의하는 논설이 실렸는데, 이 역시 위생과 관련되어 있었다. 앞의 논설을 포함해 「독립신문」에서 직접적으로 종목일을 언급한 기사는 국문판 두 건, 영문판 한 건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종목일을 논한 기사 두 건이 더 있다.

본 연구는 그간 조명되지 않은 종목일 제정 움직임을 당대 한성의 도시환경 문제 속에서 검토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말 한국에서 도시위생 문제는 어떠하였나? 둘째, 어떤 유형의 경관이 건강하다고 여겨졌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관련 제도와 정책, 계획 방법, 사업, 공간 등, 식목일 제정 운동이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 II. 연구 내용 및 결과

#### 1. 19세기 말 한성의 위생 문제

19세기 말 위생 개선은 한성의 주요 과제였다. 1880년대 초,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가 김옥균(1882)은 도시 개혁에 관한 그의 책의 서문에서 “그 중에서 각국의 가장 요긴한 정책을 구한다면, 첫째는 위생이요, 둘째는 농상이요, 셋째는 도로인데, ...”라며 위생을 가장 중요한 공공 이슈로 제시했다.

그 배경에는 급격한 도시화가 있었다. 15세기 초 개국과 함께 둘레 약 17km의 성곽 도시로 건설된 서울은 본래 약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전쟁과 기근으로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약 10년 사이 서울의 인구는 10만에서 2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그 후 그 규모가 지속되면서 도시의 자정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었다(신동원, 1989).

이 상황에서 전염병이 발발하면서 위생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1895년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했으며(신동원, 1989), 말라리아는 콜레라보다 더욱 심각해 기나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키니네를 주요 성분으로 한 말라리아의特效약 광고가 독립신문에만 600회 이상 실릴 정도였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 병원인 제중원이 1886년에 발간한 한국인의 질병에 관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외래환자 중 소화기환자와 성병환자 다음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많았다(Allen, 1886).

#### 2. 처방으로서의 녹지

당시 의사들은 전염병의 원인을 도시 환경에서 찾았다. 의사들은 말라리아의 매개체가 모기라는 사실을 밝혀지기 전까지 '나쁜 공기'를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예컨대 부산에서 활동한 일본인 의사 小池正直(1887)는 적은 녹지로 인해 강우 시 나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웅덩이가 쉽게 형성되어 말라리아가 발발한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전염병과 나쁜 공기의 상관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 나무가 위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나무는 도시에 좋은 공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특히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악취, 이산화탄소, 습기와 같은 '나쁜 공기'를 흡수하고 제거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본인 의사 고이케를 비롯한 여러 의사들이 감염성 질병의 처방으로 도시에 나무 심기를 제안했다.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근대적 공중 위생론의 전파자 서재필은 독립신문의 편집장으

로서 종목일에 관한 논설을 직접 썼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의사 Daniel Jerome MacGowan은 「대조선 독립협회회보」에 식재를 통한 질병 예방 효과 논설을 기고했다.

전염병과 건강한 도시 환경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수목을 처방으로 제시했다. 먼저 말라리아 등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성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기나나무와 유칼립투스과 같은 해외 수종을 도입할 것이 제안되었다. 한편으로는 빠른 시기에 성장하여 녹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백양목, 전나무, 가죽나무 등의 속성수가 선호되었다.

### 3. 종목 운동의 유산

종목일 제정에 대한 건의는 글과 주장에 그치지 않았다. 1896년 독립신문에 논설이 게재된 이후부터 현 식목일의 한 기원인 1910년 친경제가 개최된 시기 사이에 몇 가지 움직임이 포착된다. 우선, 행사가 열렸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독립신문」의 1896년 8월 11일 논설에서 독립공원에서의 종목일 행사를 통해 도시 식목을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키워나가려 했던 제안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종목 사업을 추진하고, 종목일을 제정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농상공부는 1903년 전국 각 지방 관청에 종목의 실시 여부를 파악하여 상벌을 시행하였고(필자미상, 1903), 1905년에는 식목 시기, 종류, 방법, 상벌제 등 12가지 항목을 포함한 식목 조례를 고시하며, 종목일 제정의 기초를 마련했다(필자미상, 1905).

1909년 4월 5일과 1910년 5월 5일에는 1894년 이래 개최되지 않았던, 오늘날 식목일의 기원으로 알려진 친경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때 식수도 행해졌다. 1909년의 친경식을 묘사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 동쪽에 위치한 왕실 밭에 황제, 황족, 신하들이 돌아가며 뽕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의 묘목을 심었다(필자미상, 1909). 이 시기에 정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종목위원회를 살펴보면, 전염병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1910년 전후로 종목은 위생 개선이 아닌 이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통감부문서, 1909).

## II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말 한국에서 종목일 제정 논의를 검토하여 근대 한국에서 도시녹지계획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종목일 제정 논의는 19세기 말 시민 사회의 도시 녹지 조성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부상한 위생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수목이 나쁜 공기를 흡수하고 좋은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퇴치의 효과적이라는 의학계의 지식과 판단에 바탕을 두었다. 셋째, 종목에 효과적인 수목으로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해외 수종이나 속성수가 권장되었다. 넷째, 종목일은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이 사라지면서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잃었으나, 1900년대 들어 정부의 종목일 훈령 발표와 친경제 개최와 함께 제도화되었다. 다만, 정부의 종목일 설립 취지는 19세기의 말 종목일 설립 제안이 강조했던 위생 개선이 아닌 이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지금껏 드러난 자료만으로 종목일의 물리적 결과물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정부의 종목 사업으로부터 식재 수종, 지역의 분포와 규모 등을 파악함으로써 당대 도시녹지계획의 지형도를 그리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강신용, 장윤환(2004) 한국 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대왕사.
2. 고미숙(2014) 위생의 시대: 병리학과 근대적 신체의 탄생. 서울: 북드라망.
3. 김옥균(1882) 치도약론. 사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서고 奎15255.
4. 신동원(1989)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한국과학사학회지 11(1): 53-86.
5. 통감부문서(1909) 종목위원회의창립. 3월 18일.
6. 필자미상(1896) 논설. 독립신문. 8월 11일. 1면.
7. 필자미상(1903) 종목상벌. 제국신문. 3월 17. 2면.
8. 필자미상(1905) 종식확장. 대한매일신보. 2월 23일. 2면.
9. 필자미상(1909) 친경 상황. 신한민보. 5월 12일.
10. 황주영(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瑪高溫(1896). 有益之樹易地遷栽.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3호(12월 31일): 4-6.
12. 小池正直(1887) 鷄林醫事. 발행지 미상: 발행사 미상. 다음을 참조. 여인석(2011)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의사학 20(1): 53-82.
13. Allen, H. N. and J. W. Heron(1886)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Yokohama: R. Meiklejohn & Co.
14. Dümpelmann, S.(2019) Seeing Trees: A History of Street Trees in New York City and Berli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5. Van den Berg, A. E.(2017) From green space to green prescriptio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Frontiers in Psychology 8(268).